

동안, 그것들이 바위를 타고 올라 가파른 비탈에서 공작고 사리를 뜯어먹거나, 추녀끝처럼 튀어나온 바윗부리 위에서 마치 좌대 위에 올라있는 양 공중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좋아 했다. 풀은 이곳이 비르지니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곤 근처 숲에서 온갖 새들의 둥지를 가져다 놓았어. 그 새들의 아버 새들, 어미 새들이 저들 새끼를 따라 이 새로운 군락으로 와 정착했지. 비르지니가 이따금씩 그것들에게 쌀알이며, 옥수수며, 조며 곡식을 주다보니, 그 아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휘파람 소리를 내는 티티새와 아주 포근하게 지저귀는 홍작, 깃털이 불꽃처럼 빨간 붉은맷새 등이 덤불숲을 박차고 나왔고, 에메랄드처럼 청록빛이 감도는 잉꼬들은 그 옆에 있던 종려나무에서 내려오는가 하면, 자고새들은 풀밭을 헤치고 달려왔네. 그렇게 모든 새들이 한데 뒹그러 무슨 암탉 무리처럼 비르지니의 발밑까지 밀려들었어. 풀과 비르지니는 그것들이 재간을 부리거나 먹을 것을 찾는 모습,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희희낙락 마냥 즐거워했지.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순진무구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신행을 베푸는 법을 익혀왔던 거란다! 너희 어머니들이 이곳에서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가 노년의 위안이 되어줄 것이라며, 또 너희가 앞날 창창한 인생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보며 넷 빈이고 하늘에 감사했는지! 내가 너희 어머니들과 이 바위 그늘 아래서, 너희가 짐승 목숨일랑 하나도 희생시키지 않고 밭에서 난 것들로만 차